

## 제 1 강 플라톤의 이데아론 I

### ※ 학습목표

철학적 세계관의 이해, 플라톤의 세계 이해에 대해 공부한다.

### ◆ 세계 자체를 사유하기

#### ▲ 최초의 철학체계들(philosophical system)

- 하나의 사상이 철학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완비하고 있을 때, 이를 철학체계라고 한다.

**하나의 사상이 철학체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세계’에 대한 일관된 이해의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존재론(ontology)이라고 하는데 형이상학, 자연철학, 우주론이라고도 부르지만 존재론이 더 일반적이다. 둘째, 세계에 있어 ‘인간’의 위상을 자리매김 해야 한다. 이는 곧 윤리학(ethics)이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특정한 이해(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로 곧 이어진다. 예를 들어, 세계를 원자들의 이합집산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합집산 중,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위상을 갖는가. 사유한다는 것을 원자들의 이합집산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 인간이란 존재는 그 진화과정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육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믿는 사람은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믿는 사람과는 상이한 윤리학을 가질 것이다. 셋째, 메타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는 철학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1=2$  라는 것은 수학적 진리로써 맞고,  $1+1=3$  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맞다’ 혹은 ‘틀리다’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답할 수 있는가? 이처럼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메타적’이라고 한다.

#### ▲ 플라톤

- 거의 모든 사상은 철학체계의 패턴을 발전시키고 주석을 다는 과정일 뿐, 원류가 되는 철학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철학체계를 세운 사상사의 거장들이 있는데 이들 중 첫 번째 등장인물이 플라톤(platon, BC429-BC347)이다.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은 자연세계, 그 현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는 인간과 윤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플라톤에 이르러 존재론, 인간관, 윤리학, 인식론, 미학 등이 수미일관된 체계로 등장하였다. 플라톤에 대한 이해가 곧 서양 철학사의 절반을 이해한 것과 같을 정도로 플라톤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또한 플라톤에 대한 비판도 사실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 화이트헤드[Whitehead 1861-1947]는 ‘서양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긴 각주다’라는 표현까지 하였다.

####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철학사의 드라마틱한 순간)

- 세속적 관점에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대조적인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한 산파의 아들로 태어나 광장(agora, 아고라)에서 젊은이들과 인생론을 말한 사람이고, 플라톤은 아테네 대부호의 아들로 정치가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자신이 지금껏 가치를 두던 것들(재물, 시, 기존의 정치 등)을 포기하고 소크라테스의 문하생이 되었다. 소크라테스가 한평생 윤리와 행위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플라톤은 윤리 뿐 아니라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체계의 추구보다는 행위 자체를 추구했다면, 플라톤은 거대한 철학체계를 추구한 인물이다. 동양식 기준으로 보자면 소크라테스는 산 속에서 몸으로 철학을 보여주는 성인이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던진 물음에 대해 명확한 형이상학적 가설을 제시하는 사람, 즉 현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한평생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이 새로운 정치에 몰두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독약을 먹고 죽어야 하는(B.C. 399) 폴리스의 현실에 대한 고뇌 때문이었다.

#### ▲ 철학공부를 위해서는 그 당시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 철학공부를 할 때에는 사상가가 속한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 속에서의 인간과 지식의 상대적 위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세계와 천년 후의 우주 세계, 공자의 세계와 플라톤의 세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플라톤에게 세계는 넓게 보면 지중해, 좁게 말하면 에게해였다. 이는 곧 헬라스(hellas) 세계로, 페르시아나 이집트에 걸친 오리엔트(orient) 세계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 ▲ 플라톤의 정치철학

- 플라톤의 정치철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철학이 아니라 ‘폴리스(polis)’, 그 중에서도 아테네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정치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지평보다 훨씬 좁은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 개혁을 위해 몇 번 시라큐스에 관여했으나 환멸만 느끼고 돌아온다. 아카데메이아(고유 명사)를 세워 교육했다. 아카데메이아는 그 당시 한국의 ‘서울’처럼 하나의 고유명사였으나 후에 상징화되어 공부하는 모든 곳으로 일반명사화 되었다. 그 정문의 현판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써어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이 얼마나 기하학을 중시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서구 합리주의는 기하학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다.

### ▲ 플라톤의 이데아론

-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형이상학적인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물음들에 대해 형이상학적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서구 철학사에 길이 영향을 끼치게 될 형상철학(形相哲學)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 뢰타고라스의 자연철학 등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形相과 形狀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形相는 플라톤의 이데아, 形狀는 figure 나 image 처럼 단순히 모양을 의미한다.

### ▲ 플라톤의 저술형식

- 그리스 헬라스(Hellas) 문명시대의 글쓰기 방식은 서사시 → 서정시(B.C. 7c) → 산문체(B.C. 6c) → 드라마(B.C. 5c)의 양상으로 변화해왔다. 젊은 시절 드라마 작가였던 플라톤은(때문에 그는 호메로스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슬퍼하고 있다) 그의 철학 저작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썼다. ‘드라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플라톤 시대에 가장 중요시되는 장르였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에는 주인공인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와 대화(dialogue)를 나누는 다른 인물들이 등장한다. ‘dia-logos’는 로고스(logos)를 통해(dia), 즉 이성을 통해서 싸움 혹은 대화한다는 뜻이다. 플라톤의 사고방식과 그의 저술방식은 형식적으로 일치하는데, 이 대화편 자체가 변증법(dialektikē)이라는 사유를 구현하고 있다. 변증법은 ‘대립, 모순, 갈등’에서 비롯한 대화를 통해 보다 높은 통일성을 획득해 가는 방법이다. ‘문답술’이라고도 번역되나 그 이상의 깊은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변증법은 단지 한 사람의 논술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는 견해들의 박진감 넘치는 싸움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A 나 B 라는 두 인물의 고유한 대화를, 플라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만 정리하게 되는 한계를 가진다.

### ◆ 세계의 양상

#### ※ 학습목표

대화편과 그에 나타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공부한다.

### ▲ 플라톤의 대화편

- 역사상의 실제인물이 등장하는 저작이다. 약 30 편 정도로 처음에는 짧다가 갈수록 분량이 길어진다. 초기에는 플라톤의 생각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생전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파이돈』 이후 후기에

이러려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선명히 나타난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이지만 사실상 그 이야기의 핵심은 플라톤의 것이다. 초기의 대화편들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상당 부분 보여준다. 법정의 소크라테스를 기록한 『변론』, 탈출을 권하는 죽마고우인 크리톤과의 대화를 그린 『크리톤』, 경건(敬虔)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에우튀프론』, 영혼의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알키비아데스』 등 여러 편들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대화편에서는 그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주제에 직결되므로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지론은 ‘그대 영혼을 돌보라’라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無知의 지知(자각)’를 강조하고 논변의 근거제시를 중요시했다. 이는 소크라테스에 비교적 충실한 대화편들이기에 똑 부러지는 결론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한 존재론적 가설이 제기되지도 않는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해결하지 못한 논제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데 『파이돈』에서 이데아론이 등장한다.

#### \* 참고자료

『에우튀프론,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플라톤 저/ 박종현 역, 서광사)

- 파이돈(Phaidon); ‘형상(形相)=이데아’ 개념이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대화편은 『파이돈』이다. 사형집행일 전날 감옥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전달해 주고 있는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 사유의 기본적인 형태가 드러난다. 영혼불멸(靈魂不滅)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마리가 되어 이데아론의 전반적인 뼈대가 제시된다.

#### ▲ 플라톤 사상의 출발점

- 플라톤 사상은 ‘감각적인 것(sensible)’과 ‘가지적(可知的)인 것(intelligible)’을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 ‘감각적인 것’은 우리의 감각(오감)으로 포착되고 파악하는 대상, 감각(sense)을 말한다. 강의실의 책상, 공깃돌 다섯 개의 색깔, 촉감, 냄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지적인 것’은 인간의 오감에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을 말한다. 수(數), 자연의 법칙들, 정신적인 가치들, 기하학적 구조들, 나아가 관계들, 집합들, 보편자들 등을 들 수 있다. 플라톤에게서 이 둘의 나눔은 단지 인식론적 나눔이 아니다. 우리 감각의 작용(aisthesis)에 대응하는 존재들과 우리 이성의 작용(noesis)에 대응하는 존재들에 대한 존재론적 나눔이다.

#### ▲ ‘감각적인 것(sensible)’과 ‘가지적인 것(intelligible)’의 예

- 첫째, ‘인간’은 추상적인 하나의 말이자 개념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플라톤은 ‘인간’이라는 개념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책상’을 ‘책상’이게 만들어 ‘책상’의 이데아가 실재한다고 본 것이다. 둘째, ‘1, 2, 3’이라는 숫자는 관습이나 개수를 구분하기 위해 수학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러하다. 각각을 객체로써 인식(감각)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넷째,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행하는 사람과 행하는 장소와 투표하는 모습 등도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민주주의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감각(sensible)적인 것이 아니고 다만 가지적인 것(intelligible)이다. **‘감각으로 파악된 것만으로 사물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 플라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세상에는 감각하지는 못하지만, 가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재한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데아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 ▲ 플라톤에게 ‘리얼하다는 것’과 이데아

- 플라톤에게 있어 리얼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리얼하다고 하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플라톤은 감각적인 것보다 가지적인 것(intelligible)이 더욱 리얼하다고 보았으며 감각적인 것은 오히려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데아론은 인식론적인 분류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감각작용(aisthesis,아이스테시스)에 대응하는 존재들과 우리 이성의 작용에 대응하는 존재론적 나뉨이다. 순수사유, 즉 인간의 노에시스(noesis, 사유활동)의 작용에 대응하는 존재가 곧 이데아들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란 감각작용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것**, 따라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탈물질적인 존재이다. 감각적인 것에 해당하는 아이스테시스(aisthesis)는 보거나 듣는 감각적인 활동으로, 미학(aesthetic)과 운동(athletic)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뿌리가 된다.

- 단지 인간이 편의상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눈, 코, 입 등이 감각하는 것 이상의 인텔렉트(intellect)가 파악하는 것이 이데아이다. 이데아를 신비하고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세의 기독교에 의해 신학적으로 각색된 이데아를 알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다. 이데아는 단지 센서블(sensible)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숫자, 관계, 민주주의 등이 이데아에 속할 수 있다. 플라톤 이데아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용기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 정의의 이데아, 궁극적으로는 선(善)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본 데에 있다. 플라톤은 '~자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현대적 관점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대목은 이 부분이다.

## 플라톤의 이데아론 II

### ※학습목표

이데아론의 개념 이해와 그리스 사상과 플라톤의 관계

#### ◆ 이데아의 개념

#### ▲ 플라톤의 이데아

- 이데아란 감각작용으로는 포착 할 수 없는, 보다 고차적인 순수사유에 의해 포착된 존재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탈물질(immaterial)적인 것이다. 감각적인 것은 이미 보고, 듣고, 만지는 물질 차원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빛과 물질을 통하여 책을 보고, 음파를 통하여 말을 한다. 또한, '철수'는 몇 kg 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인간'의 무게는 측정할 수 없다. '뽀빠'라는 하나의 생물에게는 꼬리가 있으나 '개'라는 이데아에는 꼬리가 없다. 플라톤은 수학(수, 자연의 법칙, 정신적인 가치, 기하학적 구조들)이야말로 이데아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다. 단순한 수학에서 더 나아가 개념, 본질 그 자체에 도달할 때 우리는 형상 이데아를 만나게 된다. 수학과 이데아의 관계는 '메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메논' 중, 노예소년이 기하문제를 푸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수학의 보편성을 이데아론의 한 실마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예 소년조차도 '논리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보편성이 드러난다. '이데아'란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보편적' 이라고 본 것이다.

#### ▲ 이데아에 관한 몇 가지 예

- 누군가 반지름이 1m 인 원을 그렸다고 하자. 그런데 그린 그림은 비둘할 수 있다. 또 선에는 두께가 없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두께 없이 그릴 수는 없다. 여기에서 '원'은 '이데아'이다. 다섯 가지 색의 백묵으로 원을 그렸다. 물질적으로는 백묵의 색이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뜻하는 '원'은 하나이고 색이 없다. 공기 돌 5개의 촉각과 냄새 등은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된 대상이지만, '5' 라는 수 자체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 포착된 대상이다. 태양이나 지구는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되지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법칙'은 감각이 불가능하다. 그것 또한 '이데아'이고 이것이 바로 immaterial 이다. 강의실에는 더위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각자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material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플라톤은 개개인의 주관이나 분위기, 상황, 기질을 초월해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 ▲ 플라톤의 진정한 관심 영역

-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문제는 수학적 아니라 용기, 아름다움, 정의, 선의 이데아 같은 것이었다. 플라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주관적 가치론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을 ‘객관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포착할 수 있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는가’ 같은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질문(무엇이 좋은 삶이냐.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폴리스가 가장 정의로운가 등)에 대하여 이데아론을 제시한다.

#### ▲ 국가론

- 플라톤은 상식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야말로 꿈과도 같은 세계이며 진짜 세계는 형상들의 세계라고 말한다. 플라톤은 이 생각을 『국가론』(여기에서 ‘국가’란 폴리스를 말함)에서 ‘**동굴의 우화**’로 이야기 하였다. ‘동굴의 우화’란, 인간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동굴에 갇힌 채 지내는 죄수와 같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각에 집착하고 그야말로 감각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의 삶을 동굴에 갇힌 죄수에 비유한 것이다.** 『국가론』에서는 ‘인식의 단계설’ 등장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서구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중 하나이다. 『국가론』에서 인식의 4단계설에 입각하여 다시 형상이론이 전개된다. 인식의 수준은 존재의 수준과 상응한다.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양분되며, 다시 감각적 인식은 감각지(感覺知)와 경험지(經驗知)로, 이성적 인식은 오성지(悟性知)와 이성지(理性知)로 나뉜다.

- ① 가시적인 것- 의견, 판단(정도 degree 의 성격을 가짐).
- ② 감각적인 것- 이미지에 의한 앎, 감각지, 경험지.
- ③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것들- 지성에 의한 앎, 오랜 경험에 의한 앎, 수학적, 과학적 (정도 degree 의 성격을 가짐).
- ④ 형상에 의한 앎- 이데아의 인식.

- 이러한 철학적 전통(가장 고차적인 앎이 이성적이라는 생각)은 스피노자, 칸트, 헤겔에 이르는 서구 사상사에 면면히 이어진다. 반면 현대철학에 오면 감각적인 것을 이성적인 것들보다 높게 평가한다. 감각한다는 것에 또 다른 복잡한 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니체 이후 현대철학에서는 덧없는 것에 생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함). 인식의 수준은 존재의 수준과 상응한다. 감각의 포착 대상은 이미지이고, 경험의 포착 대상은 사물이며, 오성지의 포착 대상은 자연의 법칙(수학, 논리, 구조적인)이고 이성적 포착 대상은 이데아적인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인식론은 후기의 대화편에 속하는 『테아이테토스』에서 다시 상론된다.

#### ▲ 그리스 사과의 중요한 특징

- **그리스 사유의 특징은 존재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그리스 사유에 있어서는 실재에 등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재성의 정도(degree of reality)를 사유한 것이다. 그리스의 존재론은 이미 가치론적인 존재론이고 바로 이데아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 예들 들어, 아름다운 ‘향아리’와 ‘발가락의 때’는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향아리의 가치(활용의 정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 이데아의 존재론과 인식론은 서로 맞물려 있다. 또한 이데아론은 ‘영혼론’(파이돈에 나타남)과도

맞물려 있다. 인식론적으로 감각적인 것은 우리의 몸, 바로 신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감각을 넘어서는다는 말은 곧 신체를 넘어서는다는 의미이며, 이데아를 파악하는 것은 감각을 넘어서는다는 의미이다. 인식론에서 순수사유는 영혼을 포착한다. 그리고 진리의 인식은 영혼의 정화(catharsis)를 전제로 한다. 사유는 영혼을 순수하게 작동시킨다(영혼이 평소엔 순수하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 즉, 인식론적인 사유의 작용으로 존재론적인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 ▲ 이데아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 : 시간

- 플라톤은 이데아적인 것, 시간을 더 많이 초월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적인 가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곧 ‘영원’이며 플라톤의 철학도 이와 같은 구도에 있다. 니체 이후에는 고정불변의 이데아적 실체가 아닌 생성(becoming)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 \* 참고 자료 1

플라톤(B.C 428~B.C 347?), 『국가-정체』, 서광사, 2005

#### ◆ 매트릭스와 동굴의 우화

##### ▲ 영화 속의 철학 읽기

- 영화 <매트릭스>(워쇼스키 형제 감독, 1999)는 뒤집어진 ‘동굴의 우화’이다. 주인공 네오는 매트릭스라는 감옥을 탈출하고 매트릭스의 실체와 진실을 본다. 플라톤의 경우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는데 반해, 매트릭스에서는 영혼(정신)이 육체의 감옥이 된다. 매트릭스 안에 몸을 가두는 것이 바로 사이버의 영상세계(자기잉여 이미지,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영혼은 육체를 향해 나아가는데, 플라톤의 경우는 정확히 그 반대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오시이 마모루 감독, 1995)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몸을 원하는 프로그램화한 영혼만이 미래의 세계를 떠돈다. 이 역시 뒤집어진 동굴의 우화이다. 사이버세계라는 것은 귀신세계와 유사하다. 몸은 없고 영혼 혹은 정신만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 ▲ 진리(이데아)는 경험된 것이 아니다

- 플라톤은 육체에 독립적인 영혼을 인정하며, 또 영혼이 이데아를 인식한다고 본다. 그러나 육체에 갇힌 영혼은 이데아를 잘 볼 수 없다. 때문에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육체의 껍질에 현혹되지 않고, 영혼에 본래 각인되어 있는 이데아를 ‘상기(想起)’하는 것이다. 진리는 ‘a-le?the-ia’인 것이다. 진리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경험이 진리 탐구를 자극한다. 예를 들어, 색깔을 가진 동그라미로부터 수학적 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수학적 원은 색깔 이전에 먼저 있었다. 그런데 감각적인 원이 이데아 원을 떠오르게 자극을 하는 것이다.

##### ▲ 『향연』

- synposion(희랍어), symposium(라틴어), 수작(잔을 주고, 받는 것) 부리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주사부리는 것이 아니다. 『향연』은 현실세계에서 출발해 차츰 형상세계로 나아가는 구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아론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책이다. 이 대화편은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가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인식론,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이 아름다움과 사랑(에로스)을 주제로 파악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여사제(女司祭)인 디오티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준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성(異性)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눈뚱으로써 아름다움과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다 넓혀 나갈 것을 충고한다. 아름다운 법, 아름다운 국가, 더 나아가 지식의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모든 종류의 구체적 아름다움이 그것에 비추어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아름다움 ‘자체’**를 만나게 된다. 그 아름다움의 형상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타자와 섞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란 현실세계를 벗어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에 비추어’ 현실적인 말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단순히 현실을 초월하는 사상이 아니라, 이데아의 인식과 공유를 통하여 이데아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여기서의 현실’을 판단하고 비교하여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데아에 비추어 비로소 현실을 평가할 수 있다.

### ▲ 형상이론

- 플라톤의 형상이론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걸쳐 계속 다듬어진다. 가장 드라마틱한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데아론을 비판하기도 한다. 형상이론을 전개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 형상이론이 보다 정교화 되려면 이 두 가지 문제, 즉 형상들과 현실적 사물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형상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의 이데아와 동물의 이데아의 관계, 혹은 관계의 이데아와 말의 이데아와의 관계 등, 보다 메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파르메니데스』 『소피스테스』 『정치학』 『필레보스』 『파이드로스』 편을 비롯한 원숙기의 저작들은 이 두 가지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구하고 있다.

### ▲ 미메시스(mimesis)

- 이데아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미메시스=모방이다. 플라톤 철학 전체를 **미메시스=모방=재현=표상(representation)**의 철학으로 규정해도 될 정도이다(여기서 ‘표상’ 근대적인 관점이 투사된 번역어이다). 플라톤은 이 관계를 ‘관여(methexis)’라는 개념으로 논하기도 한다(형상들 사이의 관계는 ‘결합’ 개념을 통해 논의된다).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현실적 존재들은 형상들을 모방하고 있다는 테제이다. 이 테제는 특히 『티마이오스』에서 전개되는 우주창조설(宇宙創造說)에 의해 뒷받침된다. 현실이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으며 또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 사유의 요체이다. ‘idea’, ‘ideal’, ‘idealism’ 같은 말들을 음미해 봐야 할 것이다. 말은 말의 이데아를 모방하고 탁자는 탁자의 이데아를 모방한다. 건물은 설계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티마이오스』에서 전개되는 우주창조설에서 모방설을 뒷받침하기도 하는데 ‘조물주’는 세계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 조각가에 비유할 수 있다. 조물주는 자기 머릿속의 이데아를 보고 물건을 빚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신의 관점에서 창조를 바라본 것이고, 플라톤의 조물주는 단지 이데아를 보고 형상과 질료를 통해 물질을 빚어낸다.

### ▲ 이데일리즘(idealism)

- 이데일리즘은 흔히 오해하듯이 번역에 있어 관념론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역이고 근대화한 것이다. 플라톤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이데일리즘이지 아이디일리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이데아는 분명 그 뜻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데아의 의미는 추상적이거나 현실을 초월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나은 상태로 바꾸어나갈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있다.** ‘paradeigma’라는 개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 철학이 추상적인 철학이며 초월적인 철학이라는 것은 단견이다. 오늘날까지도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가 대결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의 사유의 생명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 현대에도 플라톤에 대한 비판과 수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학계에서 오고간다는 것은 플라톤의 철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고 지속적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